

tvN '삼시세끼-바다목장 편' 나영석 PD

# “어제인 득량도... 낚시 재능없어 목장 선택”



“지난번에 득량도에 왔을 때 섬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다시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낚시는 도통 재능이 없는 것을 알게 돼 섬에서 찍되 목장 일을 시키게 됐습니다.(웃음)”

오는 4일 첫 방송하는 tvN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바다목장 편'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41) PD는 2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PD는 “정선에서 만났던, 염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양인 잭슨가족도 다시 불렀다”며 “섬에서 펼쳐지는 유니크한 여행기를 또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삼시세끼'를 거쳐 간 멤버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서진-에릭-윤균상 조합을 다시 한 번 선택한 데 대해서는 “득량도의 여름을 촬영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러다 보니 득량도에서 함께했던 팀을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영화와 드라마 찍는다고 설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침 또 쉬고 있다' 이서진 씨와 같이하게 됐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나 PD는 당초 잘 될 줄 모르고 시작했던 '삼시세끼'가 큰 인기를 얻어 계속 새로운 시즌을 내놓게 된 데 대해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그만'은 각오로 열심히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시세끼' 시리즈의 일곱번째 이야기인 '바다목장 편'은 '여촌 편'을 함께했던 배우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다시 출연한다. 다시 한 번 득량도에서 문친 이들은 목장

## 이서진·에릭·윤균상에 잭슨까지 출연 차승원 바쁘니 쉬고 있는 이서진 섬의 요리는 '스피드' 강조하며 웃음 자아내 첫 게스트로 배우 한지민... 내일 첫 방

일에 도전했다.

지난 방송에서 큰형이자 대장인 이서진은 어선 면허증을 취득해 '선장님'으로 거듭났고, 에릭은 수려한 요리실력으로 '에세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막내 윤균상은 특유의 밝은 성격과 대식가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이번 시즌에서는 배우 나혜미와 결혼해 새신랑으로 돌아온 에릭의 요리열정이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예고편에서 이서진은 지난 시즌 한 가지를 요리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에릭이 생각났는지 연신 '스피드'를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나 PD는 에릭의 요리 속도가 좀 늘었느냐고 묻자 “5시간 걸리던 것을 4시간 정도에 하기는 하는데 비슷하다”고 냉정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에릭이 결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굉장히 바빠졌다는 것”이라며 “원래 낚도 가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이밖에 '정선 편'에 등장했던 산양 잭슨이 두 아가 양인 필과 다이아를 낳고 할머니가 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나 PD는 “생긴 것은 염소 같지만 사실은 고급 산양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산양”이라며 “목축업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산양유를 잘 가공해서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드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 게스트로 나선 배우 한지민에 대해서는 “이서진, 에릭과 동시에 친한 여성 연예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작품에서 함께한 경험이 있더라”며 “그 두 분과 동시에 친한 것으로 봐서 지민 씨는 분명히 친사 같은 분위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로는 배우 김남길, 개그우먼 박나래 등을 꼽았다.

나 PD는 목표하는 시청률에 대해서는 “이서진 씨가 자존심이 있어서 10%가 안 나오면 자진 하차 할지도 모른다”고 “농반진반”으로 답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여러 시즌이 누적되면서 피로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진 고유 의정, 단순함, 소박함 등을 좋아해 주는 분이 많기에 그런 부분은 지켜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라이언'(옛 칸 국제광고제)에서 유창한 영어로 '삼시세끼'를 소개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이런 콘텐츠에 외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작'하기로 소문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프로그램마다 절판 정도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후배들이 많이 성장해서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잘해준다”며 “저는 또 휴지기에 저만의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일 밤 9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아내를 위한 남편에 의한 아내들의 일상 탈출 '호평'

SBS '싱글 와이프' 정규 편성... 박명수 부부 합류

파일럿 방송에서 호평받은 SBS TV 예능 프로그램 '싱글 와이프'가 정규 편성돼 매주 수요일 방송한다.

'싱글 와이프'는 아내에게 '일탈'과도 같은 휴가를 주고 남편들이 이를 지켜보며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부터 3주에 걸쳐 파일럿으로 선보였고, 인기를 얻어 한 달여 만에 정규 편성됐다. 정규편성 후 가장 큰 변화는 MC인 박명수와 부인 한수민 씨가 합류한 것이다. 박명수는 파일럿 방송 말미에서 “정규편성된다면 아내와 함께 출연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명수-한수민 부부 외에 파일럿 때 나왔던 남희석과 이경민, 이천희와 전혜진, 김창렬과 장재희, 서현철과 정재는 부부가 그대로 출연했다.

최근 연예인 가족이 출연하는 예능이 늘어나면서 우려도 늘고 있기는 하다. 연예인 가족의 힘을 빌려 TV에 쉽게 출연하고 연예계에 입문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명수는 “가족의 힘을 빌려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예인 가족이라고 뽑아주고 한번 더 관심 가져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대인들의 익숙한 가짜 감정 말한다

MBC스페셜 '가짜 감정중독' 오늘 방영

현대인은 마음속 온갖 감정 덩어리에 묻힌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가짜 감정만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결핍하면 화만 내는 사람, 속을 알 수 없게 사람 좋은 미소만 짓는 사람, 불안을 감추고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사람까지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을 표현하지만 해소는커녕 소화불량 상태만 호소한다.

MBC TV 'MBC스페셜'은 3일 폭주하는 스트레스에 탈진 직전인 대한민국 현대인들에 대한 보고서 '당신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짜 감정중독'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작진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주부, 늘 불안에 시달리는 20대 직장인 등을 만나 '감정캠프'도 떠났다. 90일간의 감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일상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3일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 (재)		00 애니컬러리 30 교황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정설계 55 닥터 365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라베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2017 KBS배 전국 리듬제대 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0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어트 30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동산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보글아 사랑해 30 헬로키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숨터 05 4차산업혁명 특선 명경관리	00 누가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타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건축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포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 TV 인사이드	55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여름특집 KBS대기획 디렉터스컷 한국사기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휴먼 다큐 사랑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동네 말말말)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웍스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의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얼마 까투리(재)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갈비 커피링)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애교만점 90세 울엄마)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김 위의 인생 (박덕 체집꾼, 뽀뽀)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공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랜드러더러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의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19:00 사이언스 맥스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언제나 영화처럼, 캄보디아 -호르는 강물처럼, 메콩) 21:30 한국기행 (올려라, 여름 4부 뽀뽀 부부가 여름을 나는 밤) 21:50 과학 다크 비로드 (소행성이 온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배우 김성원, 손녀 만나러 베트남에 가다)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음 6월 12일 壬戌)
<p><b>子</b> 48년생 가장 기본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느니라. 60년생 굵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72년생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84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39, 58</p>	<p><b>午</b> 42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4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66년생 실행하느니라 마느니라 문제만 남아 있다. 78년생 상대 역시 기본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90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 내니를 뺀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62, 76</p>
<p><b>丑</b> 49년생 오해받을 수도 있다. 61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3년생 수시로 변화무쌍한 형세에 맞출 수 있느냐 드러나는 현상이 주목하라. 85년생 상당히 생겼지만 거의 없게 지낸다. 행운의 숫자 : 45, 72</p>	<p><b>未</b> 43년생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이다. 55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67년생 조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79년생 갈구하여 왔던 바를 이룬다. 91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98</p>
<p><b>寅</b> 50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2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체념하는 것이 낫다. 74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편시에 가져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35, 67</p>	<p><b>申</b> 44년생 횡재수가 보인다. 56년생 새옹지마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의연히 대처하라. 68년생 차분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익이다. 80년생 시작이 반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50, 95</p>
<p><b>卯</b> 51년생 뜻이 굶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63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5년생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결과를 낳는다. 87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대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38</p>	<p><b>酉</b> 45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 57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69년생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리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79</p>
<p><b>辰</b> 52년생 지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64년생 길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세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비슷한 정황이 반복될 뿐이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88년생 만화극이기에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9, 98</p>	<p><b>戌</b> 46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58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리라. 70년생 신중을 기한 다면 액을 비껴 가리라. 82년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58</p>
<p><b>巳</b> 5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를 할 만하다. 65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7년생 행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이 맞다. 89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36, 50</p>	<p><b>亥</b> 47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71년생 사서라도 고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83년생 급격히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